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국민과 민족 너머의 사유

-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과 김사량의 「지기미」를 중심으로 -

박사과정 모 지 현

1. 들어가며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수용한 조르조 아감벤은 정치적인 '삶'이 제거되고, 주권권력에 의해 마음대로 살해될 수 있는 존재인 '호모 사케르', 즉 '벌거벗은 생명'을 통해 근대 주권권력의 근원을 통찰한다.¹⁾ 주지하다시피 일본 제국주의 역시 이러한 생명정치를 토대로 주권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강력한 식민 통치하에서 조선인들을 일본의 신민(臣民)으로 호명함으로써 전쟁에 동원하고 국민국가²⁾의 질서에 포섭하고자 했다. 이 지점에서 국민으로 포섭되지 않는 디아스포라라는 예외의 존재가 양산된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는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채 경계의 시선으로 국가 권력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중국과 일본으로 이주하여 생활했던 김광주와 김사량의 소설을 통해 국민국가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디아스포라적 시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중국이라는 타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조선인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내부로부터조차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인물을 조망하며, 제 몫을 잃은 자들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두 소설은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2. 경계의 공간과 계층의 분화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은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북평(北平)에서 상해로 온 '령감'은 나이는 사십도 안 되었지만, 말투나 걸음걸이 등이 늙은이 같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령감'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나'는 령감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생활하는 '법계'의 "소위 '정자간(亭子間)'이라는 좁고 어둡컴컴한 방"³⁾에 데리고 간다. 령감은 상해뿐만 아니라 만주, 용정, 북평 등 중국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다양한 인종적 차별과 폭력, 민족 공동체 내부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일종의 호모 사케르로서 존재한다. 특히 령감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집을 모조리 찾아다녀도 거절만 당하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자로 그려지면서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쓸모없는' 인간으로 배제당한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의 공간은 법적·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경계의 공간이자, 또 다른 계층화로 인해 민족 공동체 내부로부터도 배제되는 조선인이 생산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다음으로 김사량의 「지기미」는 국민국가의 질서에서 배제되어 경계에 내버려진 상태에 있는,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을 담아내고 있다. 소설은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시바우라(芝浦) 해안을 배경으로 조선인들의 '벌거벗은' 삶을 서사화한다. 집단

1)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75-177쪽.

2) 여기서 '국민국가'란 인간의 벌거벗은 생명을 자기 주권의 기반으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양창렬 역,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30쪽.

3) 김광주, 「북평서 온 령감」, 『신동아』 1936.2, 『해외동포문학: 중국 조선족 소설 1-4』,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2006, 274쪽.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기)

거주지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비참한 생활을 버텨낸다. 집단 거주지는 서로 돕고 연대하는 민족 공동체의 공간이었으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나이 육십의 ‘아편쟁이’이자 ‘나’의 유일한 동무인 지기미⁴⁾는 조선인이면서도 민족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조선인들에게서 배제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기미가 아편에 중독된 인물로 그려지는 것처럼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의 령감 역시 아편을 밀매하던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아편 문제에 연루된 인물이 국가적 층위에서도 민족적 층위에서도 이중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도 아편이 단순히 민족 공동체에서도 멸시받을 만큼 타락한 인물로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호모 사케르로서 존재하게 된 주요 원인이자 근대 주권권력을 비판하는 핵심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인들에게 아편중독자인 지기미는 무슨 의미인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을 버릇처럼 내뱉는 인물이자, “이 세상이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외려 조선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존재”(253)이다. 이에 따라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의 집단 거주지는 정치적인 ‘삶’이 제거되어 주권권력에 의해 마음대로 살해될 수 있는 호모 사케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경계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또한, 령감과 지기미처럼 경계의 공간에서 조선인들에 의해 이중의 배제를 겪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계층화 현상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의 한계와 민족 공동체의 한계를 동시에 가시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3. 배제된 자의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

대학생의 발광 사건 이후 지기미는 다른 조선인들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모노호시대 위에 포대자루를 깔고 누워 그 틈으로 비치는 햇빛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조선인들을 향한 돌봄을 위해 ‘모노호시대 위’라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그런데 지기미의 돌봄 행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인들에게 아편을 권하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지기미에게 아편은 아픈 몸이든, 아픈 마음이든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아편을 권하는 지기미의 행동은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한 돌봄 행위이지만, 동시에 아편 말고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그렇게 결국 지기미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노동자들을 깨우고, 허드렛일을 돕고, 거주지를 관리하는 행동과 매일 같은 시간에 모노호시대 위에서 포대자루를 펴고 누워 있는 행동과 주변에 아편을 권하는 행동이 모두 공동체를 향한 ‘돌봄’으로서 같은 층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과잉된, 응답이 부재한 지기미의 돌봄 행위는 진정한 돌봄이 되지 못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지기미의 행동을 온전한 돌봄으로 인식하지 않기에 지기미의 돌봄이 응답 가능성의 바깥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돌봄을 통해 민족 공동체 내부에 속하고자 했던 지기미는 타자들의 무응답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공동체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그의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은 국가적 층위의 ‘포섭/배제’ 구도뿐만 아니라 민족적 층위의

4) ‘지기미’라는 단어는 경상도 방언으로 욕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하면서 ‘지기미’라는 제목을 ‘벌레’로 번역하고 있기에 ‘지기미’와 ‘벌레’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천대받고 억압받는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의미하며, 동시에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 김사량, 「지기미」, 『삼천리(三千里)』 1941.4, 『20세기 한국소설 12: 김사량·허준 외』, 창비, 2005, 286-287쪽.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기)

‘포섭/배제’ 구도를 가시화한다.

이러한 양상은 「북평서 온 ‘령감’」에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돌봄은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을 향한 돌봄으로, 과거 령감이 아내에게 수행했던 돌봄이다. 령감은 자신의 담배는 사지 않더라도 아내의 신발은 사주고,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비력질을 해서라도 구해주며 자신의 가족을 정성껏 돌보았다. 가족을 향한 령감의 자연적 돌봄은 이후 더 넓은 범위의 윤리적 돌봄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는 타자를 향한 돌봄으로, ‘나’가 령감에게 수행하는 돌봄이자 령감이 다른 조선인들에게 수행하는 돌봄이다. 하지만 령감이 수행하는 두 유형의 돌봄 모두 지기미의 돌봄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으로서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돌봄이 되지 못한다. 령감의 돌봄을 받았던 아내는 자식을 낳은 지 열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야간도주를 하여 행방불명되었고, 돌봄의 대상이 되었던 상해의 조선인들 역시 령감이 신방에 침입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후 그 누구도 그의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령감의 어리석음을 욕하고 비웃을 뿐이었다.

‘나’는 령감을 동정하면서도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령감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지기미」의 ‘나’ 역시 지기미와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서 자신을 지기미 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는 제대로 된 상호 관계가 될 수 없고,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하는 진정한 돌봄 역시 불가능하다. 윤리적 돌봄은 규칙이나 질서가 아닌 ‘윤리적 자아’와 ‘윤리적 이상’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의 경험들은 결국 윤리 기반을 흔들게 된다. 더욱이 두 소설 속 윤리적 돌봄의 주체가 국가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더라도 민족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던 인물들이기에, 응답의 부재는 국가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넘어 민족 공동체 윤리 기반 자체에도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따라서 주권권력에 의해 이중의 배제를 겪는 인물이자 민족 공동체 내부로부터도 내던져진 이들의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이 민족 공동체의 윤리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근대 한국의 민족 이념은 외세 침탈과 식민지배로 인해 저항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신민으로 호명되며 일본의 국민으로 강제 편입되어야 했던 이데올로기 속에서 국민국가에 대한 대안이자 저항으로 존재했던 것이 일제강점기의 민족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선인에게 ‘민족’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자 해방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으며, 때로는 민족 이념이 갖는 통합성과 일체성의 속성에 의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권권력이 ‘포섭/배제’의 원리를 기반으로 생명 정치를 통해 벌거벗은 생명을 국민으로 포섭하고 또 배제함으로써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다면, 민족 공동체 역시 동일성의 논리를 기반으로 개인을 단일한 정체성 속에 포섭하며 유지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과 김사량의 「지기미」는 ‘령감’과 ‘지기미’라는 난민화된 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이들이 민족 공동체에 ‘포함’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을 통하여 국민과 민족 사이 양자택일해야 했던 식민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동체가 ‘타자화’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것 자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국민과 민족이라는 기존의 공동체가 지닌 동일성의 정치 너머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하는 것이다.